

#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최아람\* 오윤선\*\*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와 삶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기독교 후기청소년 560명을 표집하여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조사·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SPSS Win 21.0으로 정규성 검정,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는 정서, 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정서와 공동체 의식은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정서와 공동체 의식은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순차적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또래 간 신뢰감이 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이때 긍정 정서와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교회는 이러한 변인들을 발달시키기에 최적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 공동체의 통합적·구체적 역할이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연구와 각종 프로그램 연구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또래신뢰, 삶의 만족도, 정서, 공동체 의식, 후기청소년

• 논문 투고일: 2020년 3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8일

\*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외래교수

\*\* 한국성서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교수

• 본 연구는 한국성서대학교 최아람의 박사학위 논문(2020년 2월, 지도교수: 오윤선)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 I. 여는 글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염원한다.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은 모든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이다. 이러한 행복에 대한 논의는 인류 역사와 함께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행복 추구는 어느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단기간 내 압축 성장으로 빠르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고 현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 수준은 꾸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오윤선, 2019: 13-17).

실제로,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Helliwell, Layard, & Sachs, 2019: 24-26)에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행복 수준은 156개국 중 54위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30위로, 최하위에 속한다(김성아, 정해식, 2019). 그리고 특히 국내의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카카오, 2018)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감 연구에서 20-3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행복감 수치를 나타냈다.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20-30대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할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지 못하고 취업 혹은 국가시험 준비생이라는 신분으로 성인기로의 유예 현상을 겪고 있다(김지경, 2015).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책은 중·고등학생에게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성인기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20-30대 상당수의 현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들을 우리 사회의 약자(social minorities)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김지경, 2015;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양미진 외, 2018). 그리고 특히 과학의 발전과 물질만능주의의 정점을 찍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가

치관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후기청소년에게는 본격적인 사회진출에 앞서 사랑이 식어가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극복,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 가치 사이에서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 및 세계관을 정립해나갈 수 있는 방법론 등 다양한 관련 교육 지원도 함께 요청되는 시기가기도 하다(박미라, 2017). 이때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공동체가말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최적의 단체인 것이다(김홍근, 2011).

과거에 비해 고학력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시대의 후기청소년들은 무한 경쟁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학력과 스펙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과 부담감 때문에 이들 상당수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 역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서미 외, 2017; 정익중 외, 2017; 한금상, 서경현, 2015). 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의 상황 역시 비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의 이러한 현실과 다르지 않다(유지은, 2019).

후기청소년기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이후 생애의 정신건강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Roberts et al., 2002; Yang, 2008). 따라서 이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장윤주, 2015).

후기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개인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서는 삶의 만족도 언급 시에 흔히 함께 언급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Wiking, 2018). 미국심리학회에서는 부정정서 제거로 행복의 수준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긍정정서를 개발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6). 이러한 맥락으로 국내의 권대훈(2018) 연구에서 긍정정서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삶에서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을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 초·중기청소년뿐만 아니라 후기청소년도 이

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또래의 역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김미정, 2017; 김승진 외, 2016; 김여흠, 이윤주, 2013; Mahanta & Aggarwal, 2013; Mehta, Newbold, & O'Rourke, 2011).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또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신뢰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최상진 외, 2005; Rotenberg, 2010).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만족스러운 삶을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보았다. 이는 곧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수용하여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생산적이며 의미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상태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 마디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Wiking, 2018).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초·중기청소년뿐만 아니라 후기청소년 역시 또래와의 신뢰감이 바탕이 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들이 속한 공동 집단에 소속감 및 동질감을 공유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켜 나간다(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즉 후기청소년기 역시 또래 간의 신뢰 관계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Guerra & Bradshaw, 2008).

최근까지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초·중기청소년 대상의 연구(강인경, 김춘경, 2016; 김승진 외, 2016; 소난영, 박성희, 2019)와 비교하면 부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오윤선, 최아람, 2019; 유지은, 2019)는 더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또래신뢰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검증한 기독교 후기청소년 대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도 이들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Lund, 2010; Ma, 2003)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후기청소년을 대학생으로만 제한하여 수행

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통계청, 2019)에 따라서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범주에 대해 대학에 진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진출한 경우, 자격증 혹은 국가시험 준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와 삶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를 또래 간 신뢰 형성의 중요성과 함께 삶의 만족도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의 긍정적 역할을 제고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도출함으로써 기독교 후기청소년 지도 및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급격한 혁신이 요구되는 현시대적 상황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긍정정서 함양 및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는 정서, 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정서와 공동체 의식은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정서와 공동체 의식은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순차적으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또래신뢰 이해와 선행연구 동향

또래신뢰에 대한 이해에 앞서 신뢰(trust)의 개념을 살펴보면,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9). 이러한 신뢰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개념이다. 그중 심리학 분야에서는 특히 대인(interpersonal) 간 신뢰를 비롯하여 관련 요인이나 배경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재한, 2009). 신뢰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Erikson(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및 Bowlby(1988)의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신뢰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상에 대한 상호의존적 기대감이 바탕인 믿음과 함께 '신뢰한다'는 행동적인 차원,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상에 대한 평가적인 차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이다(김우택, 김지희, 2002; Barber, 1983; Mayer, Davis, & Schoorman, 1995).

또래신뢰(peer trust)는 대인신뢰 중 특정신뢰(particularized trust)에 속하는 개념이다. 특정신뢰란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대상에게 한정적으로 형성되는 신뢰이다. 또래 간 관계에서 이 또래신뢰의 정도는 필수적이다. 높은 또래신뢰 정도는 심리적으로 상호 지지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 영역에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양미진 외, 2018; Bartholomew & Horowitz, 1991; Hazen & Shaver, 1987). 또래신뢰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영유아기에 주양육자와 형성된 애착 관계에서 발달한 신뢰감을 또래로 확장시켜서 적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특정 또래를 전제로 형성된 의지 및 친밀감을 바탕으로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의 가능성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또래신뢰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공동체 내 구성원,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 즉 일반신뢰감 발달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Bowlby, 1988; Youniss, 1980).

구약성경 잠언에서는 친구에 대해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는 존재'로 명시하고 있다(잠 17:17).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우정을 통해 진정한 우정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다. 즉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요 15:13), ‘내가 명한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친구(요 15:14)’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기(요 15:15)’ 위해 ‘중’ 이 아닌 ‘친구’ 로 칭해 주신다. 이러한 우정은 인격체 간 나눌 수 있는 덕목이며(가톨릭평화신문, 2013),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참된 우정관계란 곧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사람에 대한 성실함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마 7:12; 눅 6:31).

이러한 또래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는 후기청소년 대상의 연구보다 또래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초·중기청소년 대상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선과 박영수의 연구에서 또래신뢰는 우울과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선, 박영수, 2019: 509-510). 이난의 연구에서는 또래신뢰에 대해 여자 후기청소년이 남자 후기청소년보다 더 높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또래신뢰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난, 2019: 136-137). 정숙희의 연구에서는 또래신뢰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이를 매개로 삶의 의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숙희, 2016: 79-82). 이밖에 정서와의 관계 검증 연구(김태연, 2019; 문수정, 백지숙, 2016), 개인내적 요인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김태연, 2019; 이주리, 송지원, 2017; Buschor, Proyer, & Ruch, 2013)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정서 이해와 선행연구 동향

정서(emotion)는 개인의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 혹은 그 감정을 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9). 정서는 심리학에서 정동(情動)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반사(reflex), 기분(mood), 감정(feeling) 등의 용어와도 혼용된다(Gerrig, 2013). 이러한 정서는 어떤

자극에 대한 개인적·일시적 반응으로,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Greenberg, 1993; Plutchik, 1982). 개인의 사고 및 인지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신체적 변화까지 일으키게 된다(김미숙, 2017). 정서의 가장 핵심적 역할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선택을 강화하는 것이다(Greenberg, 1993). 즉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효율적인 적응을 위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신체를 변화시키는 보편적이고 자동적인 속성의 결합이다(Keltner & Shiota, 2003; Reeve, 1992). 그리고 이는 특히 개인이 속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표현·지각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합적, 다차원적, 심층적 영역으로 이해해야 한다(Buckworth & Dishman, 2002; Gerrig, 2013; Plutchik, 2003).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서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영의, 2011).

정서는 긍정정서(positive emotion)와 부정정서(negative emotion)로 구분할 수 있다(George, 2000). 긍정정서는 대체적으로 '열정'과 관련된 정서라 할 수 있다. 이는 높을수록 활기찬, 생기 있는, 힘나는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 높은 내적 에너지를 유지하게 하여 어떠한 과제를 수행할 때 집중·몰입할 수 있게 한다(Watson, Clark, & Tellegen, 1988).

반면에 부정정서는 내적 에너지가 '피로한(fatigue)' 상태와 관련된 정서라 할 수 있다(신지혜, 정지혜, 2013). 이에 대한 지속은 불쾌한 상태를 유지시키고 주관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며, 사고의 폭을 더욱 단조롭고 좁게 만든다(Fredrickson & Cohn, 2008; Watson, Clark, & Tellegen, 1988). 그러나 부정정서는 생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도 존재한다. 따라서 부정정서를 무조건 경험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간에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부정정서를 경험하고 극복해나갈 때 진정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정서 반응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성경에서

도 여러 인물의 다양한 정서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정서인 ‘기쁨’에 대해서는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언급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때 ‘보시기에 좋았다(창 1:4; 10; 12; 18; 21; 25)’라고 말씀하시며 ‘기쁨’을 표현하신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을 흠으로 창조하셨고(창 2:7; 19) 인간에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창 2:7).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셨다. 신약의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 중 하나로 기쁨의 서신으로 불린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압도적 정서는 ‘기쁨’이다(차정식, 2017). 바울은 빌립보서 1장부터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서도 다시 한 번 기뻐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며 마무리하고 있다(빌 4:4).

이와 함께 부정정서인 ‘분노’ 정서에 대해서도 구약의 창세기부터 언급하고 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으나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창 4:5). 신약에서는 ‘분노’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해 이를 육체의 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와 극명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서로 노엽게 하지말지니라”고 권면하고 있다(갈 5:26). 이러한 부정정서는 누구나 경험하는 정서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창 4:7)를 구하며 육체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갈 2:20).

정서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직업군, 연령대 등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이중 후기청소년 대상의 정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은영과 임정하의 연구에서 긍정정서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인지적 유연성을 매개로 했을 때도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영, 임정하, 2014: 199-200). 김지예와 이상희의 연구에서는 정서와 콤포트 푸드(comfort food)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부정정서를 겪는 상황에서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높은 당분이 첨가된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정서를 겪는 상황에서는 남녀 모두 치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예, 이상희, 2014: 24-25). 주소망과 김정민의 연구에서는 부정정서가 높을수록 불면증과 근육통, 소화불량 등과 같은 신체화 증상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소망, 김정민, 2019: 370-371). 이밖에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검증 연구(정미예, 조남근, 2015; Lepp, Barkley, & Karpinski, 2014; Ozben, 2013)와 함께 최근에는 정서에 대해 정서조절전략(김미숙, 2017; 안진영, 유순화, 2016), 학습정서(한희원, 문경숙, 2015), 정서지능(Kong, Zhao, & You, 2012)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진행하는 연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 3) 공동체 의식 이해와 선행연구 동향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이란 어떠한 집단에 생활이나 목적, 운명 등을 함께 공유하며 속해 있다고 여기는 의식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9). 그리고 이 의식은 한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결속되어 가지게 되는 공통의 감정과 신념에서 형성되는 체계적 의식이다(강가영, 2014).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통합되고 욕구를 충족시키며 정서적으로 연대감을 쌓는 과정에서 더 견고하게 형성된다(박가나, 2009). 현대의 공동체 의식의 의미는 과거의 지역적 차원에서 벗어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형성될 수 있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념으로 범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세계민주시민의식의 역량 중 하나이다(박가나, 2009; 박혜숙, 2019).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공동체 생활환경 내에서 소속감이나 상호의존성, 헌신, 배려 등을 후천적으로 경험하면서 개발되고 확립되는 경우가 더 많다(아영아, 김진영, 2018).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 공동체 의식에 관한 모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상호내주적’ 원리로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며 인격 간 ‘더불어 사귀’기로 실존하고 계시는 것이다(Moltmann, 2001). 이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창 1:26)은 이러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요소인 ‘공동체성’ 회복과 실현의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공동체성은 파괴되었으며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으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셨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롬 1:4).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자녀관계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요 13:34; 15:12; 엡 2:18; 22). 이와 함께 신약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메시아 관점 공동체, 즉 예수 공동체이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통한 구약 공동체 개념의 연속선상의 개념이면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이 공동체는 부활 및 심판에 기초하여 구원에 감사하며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이다(유기선, 2006). 바울은 이때 성령님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의 공동체와 관련하여 공동체 의식의 본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온 세상의 만물이 절대자 하나님께 지음 받은 존재라는 연대의식 및 동료의식을 지니고 하나님께 부여 받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식인 것이다(강정주, 1990).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 관점의 공동체 의식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시민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범과 질서뿐만 아니라 육체가 속해 있는 세상의 질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키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존재이다.

공동체 의식은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과거의 지역사회 중심 공동체 의식 관련 연구에서 확장되어 최근에는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역량의 측면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윤성혜, 2017). 후기청소년 대상의 공동체 의식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창호와 김옥주의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창호, 김옥주, 2013: 56-58). 김성환의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범죄 두려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환, 2015: 51-52). 이밖에 또래요인과의 관계 검증 연구(박영, 허원구, 2017; 아영아, 김진영, 2018),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검증 연구(김현주, 2019; Pittman & Richmond, 2007)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4) 삶의 만족도 이해와 선행연구 동향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삶의 질, 웰빙, 행복 등과 혼용되는 용어이다(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6). 특히 행복에 대해 인지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자는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선호한다(권석만, 2011). 심리학에서는 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느낌을 중점으로 연구한다. 객관적, 물리적, 사회적 지

표가 주관적 만족도와 일치하지 않고 그 지표 역시 각 나라 및 문화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느낌 및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Diener & Suh, 1997). 이러한 삶의 만족도에 대해 긍정심리학에서는 즐거운 삶과 몰입의 삶, 의미 있는 삶의 균형을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으로 본다(Seligman, 2002). 이를 종합하면 삶의 만족도란 개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주관적·인지적 측면에서 평가 및 비교하여 내리는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Diener, 1984; Huebner, 2004). 또한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전망까지 포함하는 확장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나성윤, 2017; Diener et al., 1985).

이러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의 삶은 크고 작은 행복한 경험, 기쁜 순간들이 다양하게 경험되어 마치 이것들이 켜켜이 쌓이는 것과 같다(Kalish, 1975). 이를 통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긍정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환경적 변화에 건강하게 적응하여 성장하는 삶을 의미한다(Ryff & Singer, 1996).

성경에서는 삶에 만족에 대해 일관적으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강연정, 2015).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오직 그를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자녀관계를 정립하여 하나가 되는 삶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구약의 시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복의 근원’임을 강조한다. 예컨대 1편에서 “오직 여호와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 1:2)”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한편 오윤선은 다윗과 바울 및 예수님의 행복, 즉 삶의 만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였다. 첫째, 다윗 관점의 삶에 대한 만족은 구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러한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시 1:3)”과 같은 형통한 삶을 누린다고 하였다. 둘째, 바울 관점의 삶에 대한 만족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바울은 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기뻐했고, 서신의 수신자에게도 기뻐할 것을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다(빌 4:4). 셋째, 예수님 관점의 삶에 대한 만족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무엇보다도 개인 심령에 대한 변화로 인해 누리고 이를 수 있다(오윤선, 2012: 247-248). 이를 종합하면, 성경적 관점의 삶에 대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으로 율법, 복음,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오윤선, 2012: 217-218).

삶의 만족도는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후기청소년 대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백옥경의 연구에서 희망, 낙관성, 감사, 사랑 등과 같은 성격 강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 62%의 설명력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옥경, 2014: 68-72). 나성운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성운, 2017: 68-75). 기독교 후기청소년 대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지은의 연구에서 종교적안녕감과 영적안녕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은, 2019: 153-155). 오윤선과 최아람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윤선, 최아람, 2019: 234-235). 이밖에 병리적 요인과의 관계 검증 연구(김여흠, 이윤주, 2013; 임전옥, 2017), 개인의 성취 혹은 적응과의

관계 검증 연구(Judge & Watanabe, 1993; Mehta, Newbold, & O'Rourke, 2011)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본 연구 표집 대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과 취업, 각종 자격증 및 시험 준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국내 기독교 남·여 후기청소년이다. 국내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후기청소년 618명을 표집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58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성별분포는 남자 194명(34.6%), 여자 366명(65.4%)이었다. 현재신분으로는 대학생 299명(53.4%), 휴학생 15명(2.7%), 취업 154명(27.5%), 대학원생 9명(1.6%), 각종 시험 및 자격증 준비 37명(6.6%), 기타 46명(8.2%)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구성

#### (1) 또래신뢰 척도

본 연구는 또래신뢰 척도로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또래애착 척도를 김지연(1995)이 번안 및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개발연구원(2017)이 더욱 간략하게 재구성한 척도(Inventory of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IPA-R)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세 개 하위변인,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이중 또래신뢰 하위변인만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와 같이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낮을수록 또래신뢰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alpha$ 계수는 김지연

(1995)의 연구에서 .96, 한국청소년정책개발연구원(2017)의 연구에서 .79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31로 나타났다. 해당 척도의 각 문항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 (2) 정서 척도

본 연구는 정서 척도로 Watson과 Clark, Tellegen(1988)이 개발한 긍정·부정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를 최종적으로 이현희와 김은정, 이민규(2003)가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최근의 정서 상태를 기준으로, 이에 대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구분하여 평가하게 한다. 긍정정서를 묘사하는 9문항과 부정정서를 묘사하는 10문항 총 19개의 형용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점)와 같이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낮을수록 각각의 정서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alpha$  계수는 이현희와 김은정, 이민규(2003)의 연구에서 긍정정서가 .84, 부정정서는 .87, 전체 .84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정서가 .841, 부정정서는 .904, 전체 .738로 나타났다. 해당 척도의 각 문항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 (3) 공동체 의식 척도

본 연구는 공동체 의식 척도로 권혜원(2004)이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민주시민의식 척도를 최종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이 간략하게 수정 및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인 공동체 의식, 휴일 자원봉사 가능 여부, 타국 공동체 의식, 지구 공동체 의식 네 개 하위변인,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와 같이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낮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alpha$  계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의 연구에서 .721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695로 나타났다. 해당 척도의 각 문항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4) 삶의 만족도 척도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 척도 Diener와 그의 동료(1985)들이 개발한 척도를 최종적으로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한국판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이상적 삶의 만족도(1, 5)와 현실적 삶의 만족도(2, 3, 4) 두 개 하위변인,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아니다(7점)와 같이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alpha$  계수는 해당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임명진(2012)의 연구에서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 삶의 만족도가 .765, 현실적 삶의 만족도는 .795, 전체 .868로 나타났다. 해당 척도의 각 문항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도구

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또래신뢰		3	4, 5, 6	.831
정서	긍정정서	9	1, 2, 3, 4, 5, 6, 7, 8, 9	.841
	부정정서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904
	전체 문항	19	1~19	.738
공동체 의식		4	1, 2, 3, 4	.695
삶의 만족도	이상적 삶의 만족도	2	1, 5	.765
	현실적 삶의 만족도	3	2, 3, 4	.795
	전체 문항	5	1, 2, 3, 4, 5	.868

\*역산채점

### 3) 자료 분석 기법

본 연구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먼저 조사도구의 내용 타당도, 안면타당도,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확인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라 각 척도의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 등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포래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을 위해 다변량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영향력에서 정서와 공동체 의식이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MOS 25.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의 결과 분석 및 해석

### 1) 측정변인 정상분포 검정

구조방정식 모형 활용에 앞서 SPSS 데이터 탐색을 통해 측정변인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자료 분석 결과, 측정변인의 왜도는 .007에서 .632 범위 사이에 있었다. 또한 첨도는 .153에서 .813 범위 사이에 있었다. 이와 같이 모든 측정변인은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인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92.404$ (df=38, p=.000), RMSEA=.083, TLI=.914,

CFI=.941로, 연구 가설에 사용된 이론적 모형이 측정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렴타당성 검증을 위해 표준화된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및 AVE 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431에서 .948 범위에 있었다. 따라서 모든 경로는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다. AVE 값 역시 .572에서 .894 범위 내로 나타나 모형 내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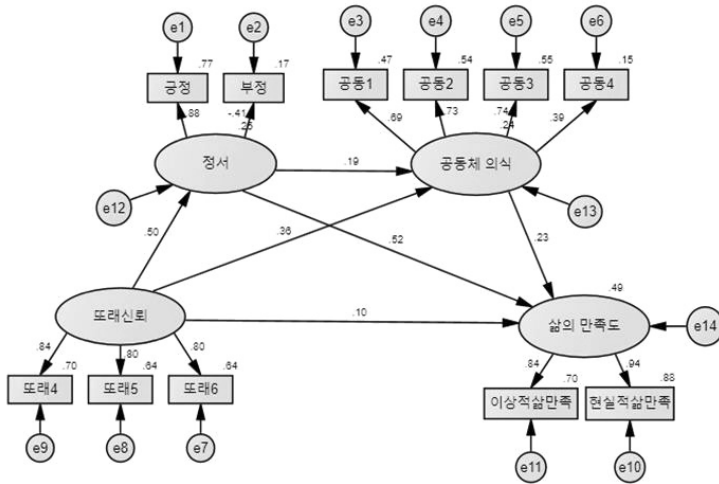
그리고 변별타당성 검증을 위해 비제약 모델과 제약 모델 간의  $\Delta\chi^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각 변인의 AVE 값이 상관계수 제곱 값(.128~.651)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척도 간 변별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해타당성 검증을 위해 분석한 결과, 모든 잠재변인 간에 정적 방향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 가설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포레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경로에서 정서와 공동체 의식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순차적 부분매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2>와 같이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 수정 지수를 검토한 결과, 특정하게 연결할 대상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간명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태로 나타난 연구모형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chi^2=148.466$  (df=34,  $p<.001$ ), RMSEA=.075, TLI=.935, CFI=.960, PCFI=.593으로 나타났다.

〈표 2〉 모형의 적합도 지수(N=560)

	$\chi^2$	df	RMSEA	TLI	CFI	PCFI
연구모형	148,466	34	.075	.935	.960	.593



〈그림 1〉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순차적 매개 최종모형

#### 4) 매개효과 검증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순차적 부분매개 모형의 직접 경로 검증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경로인 독립변인 또래신뢰와 종속변인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매개변인이 관여하기 전 상관계수 .456에 비해 강도는 약해졌으나 여전히 유의한 상태로 나타났다( $p=.001$ ). 그러므로 또래신뢰, 정서, 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는 부분매개 관계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매개경로 유의성 확인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또래신뢰에서 삶의 만족도까지의 직접 경로 및 간접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차적 매개 경로 또한 좋은 회귀계수( $\beta=.130$ ,

$p=.001$ )가 나타났기에 유의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정서와 공동체 의식은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순차적 매개 경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SMC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또래신뢰는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순차적 부분매개 모형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 결과에 대해 30.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3> 최종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SMC(N=560)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또래신뢰 → 정서 → 공동체 의식 → 삶의 만족도	.230	.130	.360	.308

### III. 닫는 글

#### 1. 연구의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가 정서, 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을 위해 다변량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신뢰가 정서, 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에 대한 또래신뢰의 모형에서 기독교 후기청소년( $F=70.293$ ,  $t=8.384$ ,  $p<.001$ )의 유의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즉 또래신뢰감이

높을수록 긍정정서가 높아지고, 부정정서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긍정정서의  $t$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긍정정서의 증가는 또래 신뢰에 더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또래신뢰와 정서의 관계를 입증한 이시은과 이재창(2005), 전효정(2013)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공동체 의식에 대한 또래신뢰의 모형에서 기독교 후기청소년( $F=33.411, t=5.780, p<.001$ )의 유의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즉 또래신뢰감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역시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김선숙과 안재진(2012), 아영아와 김진영(2018)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또래신뢰의 모형에서 기독교 후기청소년( $F=56.489, t=7.516, p<.001$ )의 유의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즉 또래신뢰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이난(2019)과 황매향과 최희철, 임효진(2016)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비롯하여 이들의 긍정정서 발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도 검증과 회귀 검증을 기초로 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또래신뢰는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부분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서에 대한 부분 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3.252(df=11, P>.05)$ , RMSEA=.019, TLI=.998, CFI=.999, PCFI=.523이다. 그리고 이 모형의 모든 직접 경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해당 경로는 모두 .01 이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신뢰에서 삶의 만족도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183이었다. 매개변인인 정서 투입 전의 상관

계수인 .303과 비교해보면 강도는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유의하였기 ( $p=.002$ ) 때문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래신뢰에서 정서로 가는 경로( $\beta=.497, p<.001$ )와 정서에서 삶의 만족도로 가는 경로( $\beta=.569, p<.001$ ) 역시 유의하였다.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매개효과( $\beta=.102, p=.002$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관계에서 정서에 대한 설명력은 25.6%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에 대한 부분 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56.964(df=24, P<.05)$ , RMSEA=.097, TLI=.920, CFI=.947, PCFI=.631이다. 그리고 이 모형의 모든 직접 경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해당 경로는 모두 .01 이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신뢰에서 삶의 만족도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307이었다. 매개변인인 공동체 의식 투입 전의 상관계수 .303과 비교해보아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의하기( $p=.004$ ) 때문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래신뢰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가는 경로( $\beta=.364, p<.001$ )와 공동체 의식에서 삶의 만족도로 가는 경로( $\beta=.338, p<.001$ ) 역시 유의하였다.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매개효과( $\beta=.258, p=.004$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설명력은 25.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보다 정서나 공동체 의식이 함께 투입될 때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긍정정서 및 공동체 의식을 개발하고 고양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삶의 만족도가 낮은 현시대 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의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순차적 부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매개효과 유

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또래 신뢰는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부분 매개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순차적 부분 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48.466(df=34, p<.001)$ , RMSEA=.075, TLI=.935, CFI=.960, PCFI=.593이다. 그리고 이 모형의 모든 직접 경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해당 경로는 모두 .01 이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개변인인 정서와 공동체 의식 투입 전의 상관계수인 .303과 비교해보면 강도는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유의하였기( $p=.001$ ) 때문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매개효과( $\beta=.130, p=.001$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관계에서 정서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설명력은 25.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와 공동체 의식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매개변인인 정서와 공동체 의식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때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설명력이 가장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또래간 신뢰감을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을 비롯하여 교회와 학교, 지역사회에서 이를 위한 개인 혹은 집단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긍정정서와 공동체 의식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확충도 필요할 것이다. 그 중에 특히 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신앙 성장과 함께 삶의 만족감 증진, 성경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 발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이를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 실제적,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방법론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 목적에 따라 각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와 공동체 의식은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에서부터 건강한 삶의 만족감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지속 가능한 긍정정서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이와 함께 이들을 지도하는 가정과 학교, 교회 공동체의 활발하고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건강한 또래 간 신뢰감과 긍정정서 개발 및 유지를 위해 지역사회 및 국가에서도 관련 기관과 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함께 분석하여 이의 발달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역시 개발하고 공유되어 교육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 및 지역사회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또래신뢰는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발달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또래신뢰는 이들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끼쳐서 사회 내 적응을 돕고 특정한 신뢰에서 확장되어 일반적 신뢰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 요임임이 확인되었다. 즉 이들이 평상시 얼마나 또래에 대한 신뢰감을 지니고 있는가는 적응적인 일상생활, 즉 학업과 사회생활 유지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긍정정서 함양과 주관

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에 대한 긍정적 확립과 발달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또래 간 신뢰관계의 현주소와 개선할 점 등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하지 못한 신뢰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후의 관계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후에 또래 간 신뢰관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관련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이 사회의 미래를 세워나갈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부여받은 존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마 5:13-14)”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신다. 이러한 정체성에 입각하여 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현실 앞에서 타협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살아가기도 한다. 이들 스스로 균형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그리스도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세상 관점의 삶에 대한 만족과 성경적 관점의 삶에 대한 만족은 같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육을 제공하는 데 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시대에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후기청소년에게 진정한 삶에 대한 만족, 즉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삶의 만족감의 실질적 정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성경적 관점의 긍정정서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제적, 통합적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이들의 또래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기에 최적화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교회 간 협력을 비롯하여 지역사

회 내 학교, 타기관 등과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효과적일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국내의 일부 기독교 후기청소년으로 선정하여 표집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 모든 기독교 후기청소년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대상을 확보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또래신뢰와 정서, 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설문 시점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답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방법을 추가한다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의 방법론은 양적연구방법론이다. 각 변인들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질적연구 또는 실험연구 등 다른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기독교 후기청소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리적 배경의 기독교 후기청소년이나 비기독교 후기청소년을 모두 포함한 것과 같이 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연구 및 함께 이들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 강가영 (2014).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이 아동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연정 (2015). 긍정심리학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행복 (Happiness)이론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3(2), 9-37.
- 강인경, 김춘경 (2016).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교육심리연구**, 30(2), 411-428.
- 강정주 (1990). 참된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적 교제. **기독교사상**, 33(10), 201-203.
- 권대훈 (2017).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삶의 의미, 삶의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34(1), 1-24.
- 권석만 (2011).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미숙 (2017). 한중 대학생의 자기불일치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지지의 위계적 매개효과 -기독교 대학생과 비기독교 대학생 비교-. 한국성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정 (2017).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희망 및 행복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아, 정해식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정책분석, 통권**, 95-104.
- 김성환 (2015).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7(2), 37-56.
- 김승진, 도현심, 이운경, 박보경 (2016).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이성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5), 83-100.
- 김여흠, 이윤주 (2013).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불안, 공감, 사회적 기술, 분노표현양식, 대인관계만족에 대한 구조 방정식 모델 검증. **상담학연구**, 14(3), 1587-1604.
- 김영선, 박영수 (2019). 간호대학생의 또래애착,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5), 503-512.
- 김우택, 김지희 (2002). 신뢰의 개념과 신뢰 연구의 맥락,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서울: 소화.

- 김재한 (2009). **동서양의 신뢰: 비교 연구를 넘어 일반 이론으로**. 서울: 아카넷.
- 김지경 (2015).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정책대상으로서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중요성 및 통합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통권(1)**, 1-8.
-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연구보고 15-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예, 이상희 (2014). 대학생들의 정서에 따른 컴포트 푸드의 차이: 성차를 중심으로. **감성 과학, 17(3)**, 15-28.
- 김태연 (2019). 애착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2015년 이후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2(1)**, 46-61.
- 김현주 (2019).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중단연구 -포레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조 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근 (2011). 소그룹모임 활성화를 통한 대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형성 방안 -한세대학교 등지모임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6(2)**, 191-218.
- 나성운 (2017).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수정, 백지숙 (2016). 청소년기 부모애착, 포레애착이 자아탄력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시설행정, 14(3)**, 149-160.
- 박가나 (2008).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라 (2017).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 요구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우울·불안, 분노조절,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2**, 221-256.
- 박 영, 허원구 (2017).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발달 궤적 및 예측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131-156.
- 박혜숙 (2019). 공동체 의식 변화양상과 개인, 가정, 학교특성이 아동·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5(1)**, 555-576.
- 백옥경 (2014). 대학생들의 성격적 강점, 자기결정성,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상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 미, 정익중, 이태영, 김지혜 (2017). 후기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심리·정

- 서적 지원 중심-. **청소년상담연구**, **199**,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소난영, 박성희 (2019). 청소년 여가활동, 여가만족, 또래애착, 삶의 질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 561-591.
-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2), 207-231.
- 신지혜, 정지혜 (2013). 무용-교사 학생 상호작용과 정서의 관계: 학습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7**(4), 15-29.
- 신창호, 김옥주 (2013). 대학생 스포츠동아리 활동과 사회적지지, 사회적응 및 공동체이식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1**(1), 49-61.
- 아영아, 김진영 (2018).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이식에 미치는 종단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6**(1), 47-66.
- 안진영, 유순화 (2016). 대학생의 수용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8**(2), 173-197.
- 양미진, 이정희, 김범구, 박선영, 김혜영, 전예나 (2018).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9**,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오윤선 (2019). **행복 코칭심리학**. 서울: 예영 B&P.
- 오윤선 (2012). 감사가 기독교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복음과 상담**, **18**, 237-263.
- 오윤선, 최아람 (2019).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27**(1), 207-246.
- 유기선 (2006). 성경적 공동체성과 기업 경영. **로고스 경영연구**, **4**(1), 1-25.
- 유지은 (2019). 기독교 대학생의 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 **기독교교육논총**, **58**, 285-310.
- 윤성혜 (2017). 대학생용 세계시민의식 척도 개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 난 (2019). 대학생의 정서문제 및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교양교육연구**, **13**(3), 125-145.
- 이시은, 이재창 (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 이영의 (2011). 한국인의 대표 감성으로서의 한(恨)의 구조. **호남문화연구**, **49**,

149-186.

- 이주리, 송지원 (2017). 후기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휴대전화 의존의 관계: 자아 탄력성의 조절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 111-126.
- 임전옥 (2017). 대학생의 영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생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4), 179-210.
- 전효정 (2013). 대학생의 애착과 삶의 질의 다중매개변인: 스트레스, 정서,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22**(2), 257-266.
- 정미예, 조남근 (2015).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긍정적 정서, 사회적 지지 및 삶의 만족의 구조적 분석. **상담학연구**, **16**(2), 179-193.
- 정숙희 (2016).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탄력성과 삶의 의미 간의 구조적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윤주 (2015). 아동의 안녕감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놀이치료연구**, **18**(2), 73-95.
- 정익중, 김세완, 신희주, 박미경 (2017). 흡연, 음주, 인터넷 게임 이용의 공존 이환이 청소년의 학교 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0**, 145-171.
- 조은영, 임정하 (2014). 대학생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4), 185-210.
- 주소망, 김정민 (2019).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신념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5**(2), 361-378.
- 차정식 (2017). 바울의 감정 표현에 나타난 심리조율과 심리치유의 수사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93-135.
-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김양하 (2005).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문화 및 사회문제**, **11**(1), 1-20.
- 한금상, 서경현 (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자아 탄력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건강**, **20**(1), 235-251.
- 한희원, 문경숙 (2015). 대학생의 학업정서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3**(4), 75-103.
-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6).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3), 195-220.
-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NY: Basic Books.
- Buckworth, J., & Dishman, R. K. (2002). Determinants of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In J. Buckworth (Eds.), *Exercise Psychology* (pp.191–209).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Buhrmester, B.,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D., & Suh, M. E. (1997). Subjective well-being and age: An international analysis.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17(1), 304–324.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Erikson, E. H. (1994).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Y: Norton & Company.
- Fredrickson, B. L., & Cohn, M. A. (2008). Positive Emotions. In M. Lewis, J. M. Haviland-Jones, & L. F. Barrett (Eds.), *Handbook of Emotions* (pp. 777–796). NY: Guilford Press.
- George, J. M. (2000). Emotions and leadership: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Human Relations*, 53(8), 1027–1055.
- Gerrig, R. J. (2013). *Psychology and life*. Boston: Pearson.
- Greenberg, L. S. (1993). Emotion and change process in psychotherapy. In M. Lewis, and J.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 (pp. 499–510). NY: Guilford Press.
- Guerra, N. G., & Bradshaw, C. P. (2008). Linking the prevention of problem behaviors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re competencies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risk preven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8(122), 1–17.
- Haze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 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uebner, E. S.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3–33.
- Judge, T. A., & Watanabe, S. (1993). Another look at the job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6), 939–948.
- Keltner, D., & Shiota, M. N. (2003). New displays and new emotions: A commentary on Rozin and Cohen. *Emotion*, 3, 86–91.
- Kong, F., Zhao, J., & You, X. (2012). Emotional intellig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8), 1039–1043.
- Lepp, A., Barkley, J. E., & Karpinski, A. C.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cell phone use, academic performance, anxiety,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1, 343–350.
- Lund, J. W. (2010). Successful faculty peer relationships at evangelical Christian colleges. *Christian Higher Education*, 9(3), 207–225.
- Ma, S. Y. (2003). The Christian college experience and the development of spirituality among students. *Christian Higher Education*, 2(4), 321–339.
- Mahanta, D., & Aggarwal, M. (2013).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European Academic Research*, 1(6), 1083–1094.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709–734.
- Mehta, S. S., Newbold, J. J., & O'Rourke, M. A. (2011). Why do first-generation students fail?. *College Student Journal*, 45(1), 20–36.
- Moltmann, J. (2001). *Ecumenism and Philosophical Questions for a Renewal of Dialogue*. Ann Arbor, MI: Sapientia Press.

- Ozben, S. (2013). Social skills, life satisfaction, and loneliness in Turkish university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1(2), 203–213.
- Pittman, L. D., & Richmond, A. (2007). Academic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late adolescence: The importance of school belonging.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5(4), 270–290.
- Plutchik, R. (2003). *Emotions and life: perspectives of psychology, biology and evolu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lutchik, R. (1982). A psycho evolutionary theory of emotions. *Social Science Information*, 21(4), 529–553.
- Reeve, J. M. (1992).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Toronto: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Roberts, M. C., Brown, K. J., Johnson, R. J. & Reinke, J. (2002). Positive psychology for children: Development, prevention, and promotion, In C. R. Syn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63–675),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otenberg, K. J. (2010). The conceptualization of interpersonal trust: A basis, domain, and target framework. In K. J. Rotenberg (Eds.), *Interpersonal trus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2–27).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yff, C. D., & Singer, B. (1996). Psychological well-being: Meaning,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5, 14–23.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Y: Free Press.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iking, M. (2018). 그들은 왜 더 행복할까 -덴마크 행복연구소가 찾아낸 남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이종인 역, *The Little Book of Lykke*). 서울: 마일스톤. (원전 2016 출판).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가톨릭평화신문 (2013.11.17). 성경은 우정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 <https://www.cpbk.co.kr/>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국립국어원 (2019). 신뢰, 또래, 정서, 공동체 의식. <https://stdict.korean.go.kr>에서 2019년 9월 2일 인출.

카카오 (2018). 마음날씨 카카오 같이가치. <https://together.kakao.com/hello>에서 2019년 9월 25일 인출.

통계청 (2019.3.21). **2018 한국의 사회지표**.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에서 2019년 9월 10일 인출.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Trust and Life satisfaction in  
Christian Post-Adolescents: Focusing on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and sense of community

**Choi, A Ram & Oh, Yoon Sun**

Hyundai Cyber Continuing Education Center &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and sense of commun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trust and life satisfaction in Christian post-adolescents. And the study seeks to provide basic data for teaching and counseling at the pastoral and educational sit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conducted to measure peer trust on Christian post-adolescents and life satisfaction, emotion and sense of community from 560 Christian post-adolescents. And using SPSS Version 21.0, and the methods of statistics wer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n structure equation analysis. Based on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er trust on Christian post-adolescents directly affect life satisfaction, emotion, sense of community. Second, emotion and sense of community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peer trust on Christian post-adolescents and life satisfaction. Third, Peer trust wielded relation on life satisfaction, which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emotion, sense of community. The church is the best institution to develop and maintain Christian Post-Adolescents' peer trust and sense of community. Therefore the Church is necessary to develop the training, personal and group program for these. On count of limitations of the study, directions for follow-up study were qualitative research and research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peer trust, life satisfaction, emotion, sense of community, post-adolescents